東大新聞

發行人 徐燉 / 編輯人 鄭相 / 主幹 宋範 / 編輯部長 金衡 / 發行所 / 우편번호 100 / 서울市中区筆洞3街26 / 東国大学校内 / 東大新聞社 / 電話交換 ㉑8131~9 / 本社直通 ㉑8577 / 每週火曜日發行

東國祝典화려한閉幕

開校67周年및「부처님오신날」紀念

祝典1日

◇민속예술제 7일 오후4時30分부터 중강당에서는 남사당, 북청사자놀음 보존회, 동아민속예술학원동에서 나온 연구원생 50여명의 민속놀이가 벌여졌다. 교수·직원들을 비롯, 일반관객까지 1千4百여명이 중강당을 꽉 메운 가운데 열린 이날 민속놀이에서는 풍물놀이(비나리), 살판(평재주), 버나(사발돌리기), 덧뵈기(가면무극), 북청사자놀음, 가야금병창, 무당춤, 살풀이, 풍물놀이(농악) 등이 발표됐다.

◇동국인올스타쇼 교수·직원·동문·재학생이 다함께 출기는 동국인올스타쇼가 7일 오후7時 중강당에서 교육방송국이 주관한 가운데 성대히 베풀어졌다. 이날 행사에서 출연자들은 그동안 연마해온 비장의 장기를 자랑했는데 시상결과는 아래와 같다. ▲1位=유영일(송가1年) ▲2位=김진균(불교4) ▲3位=박춘철(건축4). ◇폭죽놀이 7일오전9시부터는 총학생회주최로 동국축전의 개막을 알리는 축포가 2천윤여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맑하늘에 수놓아졌다. B진들(도서관뒤들) 옥상에서 거행된 이번 폭죽놀이에는 총30여발의 축포가 발사됐다. ◇연등점화 7일저녁8시부터 캠퍼스에서 가절 예정인 연등점화는 우천관계로 8일오후8시로 연기, 옥산眼부총장을 비롯한 쌍円人事와 총학생회간부·불교학생회원 및 6백여명의 학생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날 점화에는 그동안 불교학생회에서 만들어온 백여개의 연등이 성상축년을 밝힘으로써 축제의 무드는 한층 고조되였다.

祝典2日

◇敎養學部生의 午後 8일 오후2시부터 大運動場에서는「敎養學部生의 午後」라는 敎養學部 學生들의 「프로」가마련돼 즐거움이 넘치는 한때를 보냈다. ◇검도부시범 오후 2時半부터 檢道部의 시범경기가 진행됐으며 이날 열렸던 박수갈채를 받았다. ◇萬國민속의상 發表會 師範大가정교육과학생들이 의상을 입고 그나라 고유의민속무용도 발표 이번 祝典의 큰 호응을 얻었다.

祝典3日

◇연무大會 本校 체육부(部長=정삼정·展經4)는 지난 9일 중강당에서 축전기념행사의 하나로 연무대회를가졌다. 협동명사범(삼일판판장)의 인사에 이어 박동기선생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연무대회에서는 안영배(콤·토목4) 등, 의시범및기묘한 격파와묘기가속출되어 객석의 관중을 시종긴장시켰다. ◇사격대회 오전9시 ROTC사격장(육군단전돌앞)에서는 학군단(단장·裵大佐)명주 최로 제2회 공기총사격대회가 개최되었다. 본교 사격의 권위자인 이날 대회입상자와 팀은 다음과같다. ◇個人戰=1位=김현후(89점·電氣工1) 2位=조정록(73점·体育3) 3位=김승배(71점·電氣工2) ◇團体戰 1位=교직원팀(3번57점) 2位=부보생2팀(3번57점) 3位=文理大(2번49점) ◇아카데미파라다이스 「제분화연합이 지성인에게 지성의 이라는 주제로써 3회「아카데미 파라다이스」가 10時부터 소극장에서 개최되어 성황을 이루었다. 학술연구회(金長=손양호·불교4)의 주최로 개최된 이날 강연은 주로주제에 대한 사회적·역사적·윤리적 도덕적 측면에서다루어졌는데 장경학박사(法政大學長) 이용범교수 김용정교수가 각각 1시간동안의 강의를 하여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韓國言論人강연회 총학생회 변틀부(部長=박희문) 주최로 9日 오후 세미나A실에서 안병욱교수(숭전대) 주경희女史가 연사로 초청, 「신상초교수 (경희대) 주경희女史가 연사로 초청, 「신상초교수 (경희대) 신상초교수 (경희대) 주경희女史가 연사로 초청, 「신상초교수 (경희대) 주경희女史가 연사로 초청, 「신상초교수 (경희대) 주경희女史가 연사로 초청, 「

東國祝典을마치고

社說

初夏에 접어드는 五月七日부터十二日까지 六日同에 걸쳐 本大学에서는六十七週年을 記念하는第十四回 東國祝典이 젊음의 興奮과 뜨거운 祝福의 拍手속에이루어져 그 어느 해보다 많은 成果를 거두었다。

무릇 大学의 祝典이라고 하는것은 차갑고 理想의 世界에서 조용히 研学에 沒頭하는 것을 生活의 상태에 빠지는 일도 없는바 아니나 第一義로 삼고 있는 情熱과 젊음 学生이 보여준 自制心은 약진을 期待하여야 하는 까닭에 社会나 学内의特殊한 事情이라도 突発하지 않는限도 좋을일이다。

이번의 祝典에 있어서도 大学当局으로부터 最大限의 便宜가 供与되는것이常例로 되어왔다。

이러한 積極的인 支援을 받아 学術的인 貢献과 自国의 文化의 向上에 있어서도 보다 더욱 한층 이러한 協同姿勢는 무엇보다 바람직 하고 있는 情熱이 있어 約束하는 우리学府의 健全한 自制心은 자세를 가다듬고 새로운 出発을 위한 学府・体育・演武및 各種展示会와 団体 娯楽会等 그 내용이 어느때보다도 現況에 満足하여 踏歩状態에머물러 있는것은 아니다。

前進이 없고 모순의 発見과 그에 勇断이 없는 번영은 있을수 없는 까닭이다。

이라고는 있을수 없는 世代에 있어서 가장强力한 推進力으로서 既往의 缺点을 克服하는데 높은 価値視하는 時代의 첨수 있는 거대한 力量을 과시하는 하는것이며 教育을 目的하면 弛緩状態를 防止하고 行事에서 氣分을 만끽하려는 青春의 情熱이 오히려 効果的이다。時同과 財政의 한계를넘어 것잡을수 없는 虛耗하기 쉬울뿐 아니라 祝典 賦与되어야 하는것이며 단을달리는 指導層의 責任이 있는 最高学府에 있어서는 그 弛緩状態를 防止하고 行事에서 散漫한 氣分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것이 오히려 効果的이다。時同과 財政의 한계를넘어 것잡을수 없는 虛耗하기 쉬울뿐 아니라 祝典 賦与되어야 하는것이며 단을달리는 指導層의 責任이 있는 最高学府에 있어서는 그 弛緩状態를 防止하고 行事에서 散漫한 氣分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것이 오히려 効果的이다。長期의 財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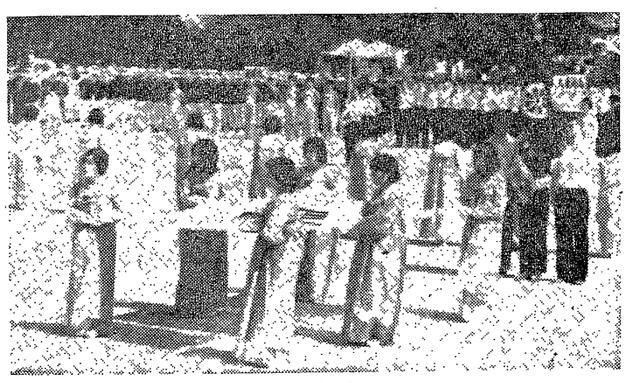
슬기와 浪漫의 祝祭

畵報로 엮는 第14回 東國祝典

▲体典에서 응원하는 東大附中高生들

▲1천m릴레이에서力走하는 大学部선수들

▲9日밤 祝祭의 휘날레를장식한「캠퍼스·화이어」는 참가한 全東國人들을열광케했다.



▲体典 開会式

▲附中과 大東中学의「줄다리기」

東國祝典 잘 되었나?

◇座談參席者◇

김 억 곤=總학생회장
덕 호=총무부장
이 갑 곤=섭무장
이 은 오=KCC회장
황 행 주=한국문제연구회회장
박 종 영=방송국심무국장
나 화 성=사진클럽회장
송 용 성=방송국요원
정 욱 번=방송국요원
사회리 : 김형균=本社編輯長
정리 : 윤태경 記者

신록이 멀리 東岳의드 박에 젊은 知性들이 활개를 펴는 祝典, 오월이 되면 화려한 축전에 東国人들은 마냥 부풀기만 한다.

올해로 14회째를 맞은 동국축전이 지난 7일 축전선언을 스타트로 6일 간의 화려한 行事를가지 12日 제3회 東国学院総合体育大会을 휘날레로 끝 주한 일정을 마쳤다.

이번14번째 東国祝典의 学生들의 눈에는 어떻게 비쳤으며 축전을 기획한 간부진들의 辯은 또 어떨 것인가.

12日오전11時 学生会館 構内食堂에 마주한 참석자들은 더제로 무난함속 진진행이었다고 意見을모았으며 기타 세부적인축전진행소감을 나누었다.

▲김형=이렇게 훌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14회 축전을 마치고난 学生들의 반응은 또 호응을 얻고 기간 저의 총단축이 심 학생들이 참여할수 있었다는 점이 가장 큰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억=例年과달리 새로와진 祝典기획에 자신을 갖습니다. 좀더 많은 여러분께서 그렇지는 않았지만 祝典을 계획하고 추진하신 총학생회간부들의 고충을 어디에 있었는지 말씀 부탁드립

新刊書評

해박한 資料、論旨平易

閔斗基著「中國近代史研究」

—紳士層의 思想과 行動—

우리學界에 있어 學問의 水準이 몇몇 다른나라의 그것에 미치못하고있는 실정임은 숨길수 없는 사실이다。이러한現實에는 두가지원인을 들수있는바 첫째는 學問할 때는 自身의 研究態度의 不誠實이라 하겠다。첫째 원인은 客觀的 社会實情이니 어쩌타마는 研究態度는 研究者자신의 문제일에도 남의나라것을 표절、復寫하기에 餘念이없는가하면 講演会場이나信徒들앞에서 할 「敎文따위를 學術論文인냥 흔들하는 관국에 이르러서는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이같이 삭막한 學界의 현실에서도 이번 우리東洋史學界에서는 閔斗基교수의 「中国近代史研究」가 出刊되게 됨으로서 『与件의不備』로 研究者의 노력여하에따라 어느정도 克服되어질수있다는 산 例가 생겨지게된것은 비단 우리 東洋史學界만의 慶事가 아니다。

閔敎授의 이 力著에대해 高柄翊博士는 序文에서 『中国歷史의 內面的인 주요문제를 변적적으로파고 들어간 研究書籍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이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中国史研究에 한 里程標가 될것이며 나아가서 다른 나라의 中国史學에도 공헌이 있을 것이라고 격찬하고 있다。

사실 종내 우리의 中国史研究는 歷史의 흐름을 內在的 측면에서 파악하려는 본격적인 것이 기보다는 研究者의 취미나 기호 혹은 그때 그때의 必要에 따른 皮相的 觀察에 그쳐 왔다고 함이 옳을 것이다。즉韓国史研究에 필요한 部分이 거나 現代史에 있어 中国문제가 어필한다는 점에서 国際政治史的 考察의 범위를 넘어서지 못해 은 연이였다。물론 이러한 研究成果에 평가를 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에게 中国의 올바른 이해가 오늘날처럼 절실한적이 없는 때에 中国史研究가 없다는 것은 이유는 없다。

本書는 그 제목을 「中国近代史研究」라 하였으나 실제의 내용은 戊戌改革、立憲運動、辛亥革命五、四運動과같은 近代史의 주요事件들을 직접 攻論文의 用語및 論旨의 難解性으로 하여 一般의 접촉에 벽을 쌓아 온 실정이었음에 비추어 본書는 다른 또하나의 実例를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아울러 지적하여 두는 바이다。

이책이 中国史에 관심 갖는 이의 좋은 벗이되며 나아가서 다른 나라의 믿어 의심치 않는 이웃이 되기를 바라 이를들어 무방할것이다。

本書는 해박한 資料의 분석、비판을 아낌없이 구사한 專攻論文이되 論旨가 明快하고 그 難解性은 오직 著者自序인 「近代史」에지는 『近代社会思想史』연구를 위한 『伝統的 要請에서 本研究書의 가치가 한층 돋보인다는 것이다。

本書는 그 제목을 「中国近代史研究」라 하였으나 실제의 내용은 戊戌改革、立憲運動、辛亥革命五、四運動과 같은 近代史의 주요事件들을 직접 攻論文의 用語및 論旨의 難解性으로 하여 一般의 접촉에 벽을 쌓아 온 실정이었음에 비추어 본書는 다른 또하나의 実例를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아울러 지적하여 두는 바이다。

이책이 中国史에 관심 갖는 이의 좋은 벗이되며 나아가서 다른 나라의 믿어 의심치 않는 이웃이 되기를 바라 이를들어 무방할것이다。

<史学科교수> 曺 永 祿

演劇學의 研究方法提示

張漢基著「現代演劇入門」

演劇学科가 몇개의 大学에 창설되었지만 아직까지 우리에겐 学的研究의 方法論書가없어 색로 읽히는 演劇学전공자들에게는 많은 고난이 있어왔다。

그동안 발간된 몇권의 연극서적은 모두 그 실제의 입문서였지 학적으로는 成立될수 없는 종류의 것이었다。이런점은 꼰 연극학도 실제부터시작하여야 한다는 結果를 가져온 셈이다。

그도 그럴것이 演劇이 学問으로 다루어지기는 欧美各国을 보더라도 고작 一世紀를 넘나드는 때문이다。

이런 點을 절간한 끝에 張漢基 敎授는 그간 学生들에게 가르치던 演劇概論」講義案을 기틀로 「現代演劇学入門」을 執筆한것이 아닌가推定된다。

이冊은 第1部에서 演劇学의 意義규명에 중점을 두었으며 第2部에선 그方法論、第3·4部에선 演劇全般에 걸친것을 学項目에 欧美를 비롯 東洋演劇과 우리演劇을 비교관점은 이책이갖는 独特한 점이라고 하겠다。

演劇学은 演劇을 틀로 이지만 그의 여러側面 科学을 補助学으로써 필요로하는 学問이다。哲学·美学·芸術学·民俗学을 틀론 하다못해 社会学·人類学·政治学·経済学까지도 포함한다。

그럼으로 演劇은 実際面의 体系化에도 어려움이있지만 演劇学으로써의 그들을위한 参考書이며演劇人의 대다수가 아직도 주먹구구식을 면치 못하고있다。

이「現代演劇学入門」은 이런 現状에 처한 演劇人에게 初入門書나 既成演劇人에 있어 보충 및 補助的 참고서로 환영되리라 믿는다。

<演映科교수> 李 眞 淳

韓國의 新興宗教

李 璟 雨

〈仏教大仏教科·梵西誌編輯長〉

前號에서 韓國新興宗教의 全体的概況과 新興宗教 類似宗教의 概念을 略述하였던바 이번號에는 이러한 新興宗教群이 発生하게된 動機와 要因을 分析하고 그 問題點과 宗教的內容을 살펴보고자한다。

發生史的考察

現在 韓国의 新興宗教를 資料상 분류할때 十三系列로 보고있음은 前號에 밝혔지만 이 系統에서 各各 発生과정에 있어서 특이성을 가지고있으며 時代的 背景에 있어 서는 共通點을 가지고있으므로 이를 살펴보고자한다。

①東学系—1860년崔水雲(濟愚)이한울님(上帝)의 啓示로 待天呪(至氣今至願寿大降 侍天呪造化定永世不忘万事知)와 서울에서 丁克慶등이 세운 妙道社라는 念仏団体가 기록되어있어 仏教系新興宗団은 東学과 同時代에 発生한것으로보인다。또한日帝時 仏教系는 단양을 발지 않았으므로 水雲教나 金剛道같은 「系譜」의 단체가 仏教系列에 끼어 명맥을 유지하는등 그 性格이 잡다한 현상을 보였다。

③一夫系—1861년金恒一夫이이요)을 제창하니 金恒은원래 南学系의 실학자였다。스스로正易의理를 悟道했다하여 周易은 先天을 만들어 五学呪文(음아오이요)을 보였다。

이러한 발생동기를 안고 우선 各系譜의 発生則面을 살펴보자한다。

①東学系—1860년崔水雲(濟愚)이한울님(上帝)의 啓示로 待天呪(至氣今至願寿大降 侍天呪造化定永世不忘万事知)와 서울에서 丁克慶등이 세운 妙道社라는 念仏団体가 기록되어있어 仏教系新興宗団은 東学과 同時代에 発生한것으로보인다。또한日帝時 仏教系는 단양을 발지 않았으므로 水雲教나 金剛道같은 「系譜」의 단체가 仏教系列에 끼어 명맥을 유지하는등 그 性格이 잡다한 현상을 보였다。

③一夫系—1861년金恒一夫이이요)을 제창하니 金恒은원래 南学系의 실학자였다。스스로正易의理를 悟道했다하여 周易은 先天을 만들어 五学呪文(음아오이요)을 보였다。

④檀君系—단군신앙을이 三国以前부터 民俗信仰으로 내려왔지만 신앙체의 교단구성은 1890년 金廉白이 平南孟山에서 神教를 만든것이 최초이며 1904년 太白山에서 단군신교의 教旨를 밝힌 33人의 제자가 단군교布明書를 発布하고 1909년 羅喆(弘敏)이 서울에서 大倧教를만드니 이를 童興이라고한다。

⑤증山系—1901년全州 甘岳山에서 道를 깨달은 姜一淳(號가 증山)이 스스로 九天天帝의前身으로 증생을 구제키위해 人身으로 化하여神明과 人同의 권限을 解顯시키며 先天交易期의 開闢公事인 天地公事를行한다고 敎団을 設立、그가 맡는 呪文에 흠치흠치太乙天上元君리흠아都라고 주장、五学呪文(음아오이요)의 啓示로 흠흠리고 춤추며 天呪(至氣今至願寿大降 侍天呪造化定永世不忘万事知)를 외우는데 흠흠리고 춤추는 것이 마치 흠흠 춤추는 것과 흡사하여